2005년 봄 학기
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
노아, 다니엘, 욥—
생명의 노선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본들

메시지 11

다니엘
(4)

마지막 때에 이기어 시대를 전환함

성경: 단2:28, 9:24-27, 마24:14-15, 32-33

I. 우리에게는 '마지막 후일에 될 일'을 볼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데,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군대로 예비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시대를 전환할 수 있기 위함이다—단2:28, 9:1-27, 창1:26, 고전2:9-10, 엡1:17, 5:25-27, 6:10-20, 계19:7-9, 13-16.

II. 다니엘서 9장 24-27절에 있는 칠십 이레의 예언은 주님께서 오실 날이 매우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. 칠십 이레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며 한 이레의 기간은 칠 년이다.

A. 첫 번째 일곱 이레(49 년)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중건하라는 포고가 내려진 때(느2:1-8)부터 중건이 완성된 때까지이다.

B. 둘째로, 육십 이 이레(434 년)는 예루살렘의 중건이 완성된 때부터 메시아가 끊어진(십자가에 못 박힌) 때까지이다—단9:26.

C. 셋째로, 마지막 이레의 칠 년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과 견고한 언약을 맺는 때(27절)일 것이다. 그 이레의 중간에 적그리스도는 언약을 깨뜨리고,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종결시키고,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핍박할 것이다(27절, 계12:13-17). 이것이 삼 년 반 동안 계속될 대환난의 시작일 것이다.

D. 칠십 이레의 육십 구 이레와 마지막 이레 사이에 기간을 알 수 없는 간격이 있다. 이 간격이 비밀의 시대, 은혜의 시대, 교회의 시대이다—엡3:3-11, 5:32, 골1:27.

1.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는 새 창조 안에 있는 교회를 은밀하고 비밀하게 건축하시어 그분의 몸과 신부가 되게 하신다—엡5:25-32, 참조 마24:32-33, 살후2:3-4.
2. 칠십 이레의 마지막 이레의 끝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기는 이들인 그분의 신부 군대가 치는 돌로서 와서 인간 정부의 총체를 박살내고 하나님의 왕국인 태산이 되어 온 땅을 채울 것이다—단2:34-35, 살후2:8, 계19:19-20.

III. 주님의 이기는 이들이 되어 다음 시대를 가져오려면 우리는 날이 밝아 새벽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어두운 데서 빛나는 등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주의해야 한다—벧후1:19.

Ⅳ. 우리에게 있는 '오늘'은 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이다.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이 있는 한, 우리가 아직 호흡을 가지고 있는 한, 우리는 주님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하며,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, 항상 그분의 오심을 격려 삼아야 한다—딤후4:1, 6-8, 눅12:16-20.

Ⅴ. 주님께서 오실 때 그분은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도적같이 오시어 그분의 보물들인 그들을 훔쳐 하늘들에 있는 그분의 임재 안으로 가져가실 것이다.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하며 그분의 신부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—단10:19, 마24:42-44 , 25:13, 계19:7, 22:20.

A. 우리는 반드시 참 나실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헌신을 하여 그분의 반간증, 즉 예수의 증거에서 빗나간 모든 것에 대항하는 간증이 되어야 한다—민6:1-8, 단1:8, 계2:13.

B.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재조성되도록 평생 성경을 읽어야 한다-딤전4:6, 골3:16, 신17:18-20.

1.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호흡인 그분의 말씀을 누려야 한다. '묵상' 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'경배하다, 혼잣말하다, 크게 말하다' 를 내포한다—시119:15-16, 딤후3:16-17.
2.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말씀을 주의 깊게 숙고하면서 맛보고 누리는 것이다. 기도하고 속으로 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포함될 수 있다.

C. 우리는 기도 안에 보존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.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존재는 온통 하나님의 권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—단6:10, 9:17, 왕상8:48, 참조 롬1:21, 25.

D.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분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신 그리스도와의 하나 안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.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, 즉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분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이어야 한다—빌1:22-26, 고후1:24, 시27:4.

E. 성숙에 이르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되는 것이 아니다. 그러므로 그분의 오심을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들을 예비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자라나, 그분이 오실 때 성숙게 되어 들림받아 보상을 받게 해야 한다—눅21:34-36, 참조 계3:10, 12:5-6, 14절.

F. 우리는 반드시 매일, 종일 생명 안에 깨어서 여분의 기름을 사야하고, 봉사에 있어서 신실하여 때를 따라 주님의 백성을 먹여야 한다—마24:32-25:30.

1.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위해 깨어 주의하여, 영에 의해 행하고, 그 영에 이르도록 심고, 그 영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—엡6:17-18, 골4:2, 갈5:16, 25, 롬8:4, 갈6:8, 고후3:6, 롬1:9.
2. 우리는 결코 우리와 함께 노예 된 이들을 때리거나 술 취한 채 먹고 마시거나 주님의 은사를 파묻는 이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. 그보다 우리는 반드시 온 땅에 왕국 복음의 진리를 확산해야 한다—마24:14-15, 45-51, 25:25, 단11:32.

G.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 사탄의 마멸 공작에 맞서 서 있어야 한다—계3:10, 단7:25.

1.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 그리스도를 으뜸 되게 하는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—4:26, 롬8:28-29.
2. 우리는 주님을 알고, 교만에서 구원되고, 은혜의 분배를 받기 위하여, 반드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임재의 제한과 한정과 권위 아래 머물러야 한다—계22:1-2상, 렘9:23-25, 벧전5:5.

© Living Stream Ministry